

# 第7代會長에 閔寬植 박사 재추대

## 科總 제17회 代議員총회서 만장일치로 82년 事業計劃 · 豫算도 原案대로 승인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2월 24일 하오 3시 汝矣島 全經聯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 17회 定期代議員總會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閔寬植 회장을 제 7대 會長에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尹日善 명예회장과 金東一 상임고문, 金容瀚 과학기술처차관과 2백여 대의원, 그리고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또 감사 2명을 유임시키고 부회장과 이사 선임은 회장에 일임하는 한편 81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안 및 8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한 후 과학기술진흥과 지역사회개발, 科總육성 발전에 기여한 朴成宇 교수(서울대 농대) 朴琦澤 교수(부산대 농대) 등 2명에게 공로패를, 張洙瑛씨(과학기술처 진흥과장) 孔龜泳씨(서울

市教委 장학사) 蔡光國씨(서울신문심의자료실장) 張在烈씨(중앙일보과학부기자) 등 4명에게 감사패가 주어졌다.

### 有功者에 表彰도

한편 閔회장은 科總주요사업에 협조가 많은 文盛泰(한국기술사회사무국장) 朴性一(대한외과학회총무) 張永惠(대한건축학회총무) 씨 등 3명과 장기근속 모범직원으로 李康模(기획관리실장) 李鍾安(총무과장) 李鎔澤(진흥부조사과장) 徐光雲(관리부) 金德烈(관리부) 씨 등 5명을 표창했다. 다음은 閔寬植회장의 就任辭 전문이다.

就

任

辭

要 旨

오늘 代議員 여러분들께서 다시 만장일치로 저를 제 7대 회장에 재추대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송구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한 10년전부터 우리 科總을 맡아서 일을 해왔으면 하는 요청을 외람되게도 金東一박사를 비롯

해서 여러 선배 과학기술인들로부터 받았읍니다.

그러다가 4년전에 명예롭게도 우리 과학기술계의 총본산인 科總會長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회장을 맡고 보니 科總은 당시 회관만 우뚝 서 있었지 내실

면에서는 허술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은 결코 제가 어떤 선임자나 선배를 힐끗기 위해서거나 그런 의사는 조금도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사무처의 내실을 기한후에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동안 제가 科學徒 출신으로서 政界에 뛰어들어 갔던 그 죄과를 속죄하고 나올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제 人生을 과학도로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취임당시 在美과학자를 초청해서 열개된 國內外國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가 한 두어달 앞두고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과학기술처장관이신 崔亨燮박사에게 科總은 이름만 빌려주고 大會의 운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맡아서 하며 政府의 보조금도 KIST에 가 있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냐고 물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崔장관은, 여기에는 他意가 있는 것이 아니라 科總사무처가 수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으므로 만약 閱회장이 이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할 자신이 있다면 회의를 직접 운영, 개최하라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장단과 의논하여 학술대회를 科總이 주관해서 치루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誠信女子大學校로 자리를 옮겼으나 당시 鄭助英사무차장의 리더쉽과 조직력으로 그 대회를 훌륭하게 치뤘으며 우리는 이 대회를 계기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趙完圭 부회장도 당시 학술위원장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을 얻기위해 정부는 물론 政黨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모두들 科總이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회장단이 다같이 힘을 써주시고 정부관계자들도 인식을 새롭게 해 주시어 科總이 성장을 해 오면서 內實을 기해 지금은 무슨 일이든지 수행해 나갈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때 저의 임무는 바로 끝난 것이며 또 科學徒로서 政界에 도피했던 그 죄는 충분히 속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대의 흐름이 世代的 交替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자리를 당연히 물러가는데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자리에 취임할 때보다는 그 자리를 떠날때 깨끗하고 명예롭게 떠나야된다는 것이 우리가 다같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결심을 金東一고문과 상의하였던 바 金고문께서는 科總이 완전히 궤도에 오를때까지 한 期만 더 회장직을 맡는것이 어떻겠느냐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 설왕설래 끝에 저는 이러한 방법을 한번 강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科總회장을 하면서 여러가지 느낀 점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발언권을 가져야겠지만 우선 會議운영에 있어서 좀더 근대화가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취임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이전에 회관준공문제는 물론 여러가지 미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편 科總정관상의 몇가지 진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전체회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科總會長の 임기를 현재의 2년에서 3년 單任制로 하고, 또 현재의 이학·공학, 농수산, 보건, 종합부문등 5개분야별 대표가 年次的으로 회장직을 순환제로 맡는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총회의 이름으로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 회장임기가 끝나기 상당기간 전에 정관개정 작업을 마무리지은 다음 총회를 소집, 새로운 單任회장을 선출하고나서 이 자리를 떠나는 명예로운 퇴진을 용서해주신다는 條件下에서 새 회장에 취임할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